

第108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開會式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 2001年 2月 5日(月) 午前 11時03分 開式

第108回鐘路區議會(臨時會)開會式順

- 1. 開 式
- 1. 國旗에 대한 敬禮
- 1. 愛國歌齊唱
- 1. 殉國先烈 및 護國英靈에 대한 默念
- 1. 開會辭
- 1. 閉 式

(11時03分 開式)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지금부터 第108回 鐘路區議會 臨時會 開會式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國民儀禮가 있습니다. 壇上의 國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起立)

(國旗에 대한 敬禮)

다음은 愛國歌 齊唱이 있습니다. 錄音된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齊唱)

이어서 殉國先烈 및 護國英靈에 대한 默念이 있습니다.

(一同默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着席)

다음은 議長님의 開會辭가 있습니다.

○議長 金以煥 친애하고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해 오직 명예와 긍지만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는 盧張鐸 副區廳長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

분! 신년 벽두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십 수년만의 폭설과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금년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뜻깊은 제108회 임시회에서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설렘과 희망을 안고 출발한 새천년 첫해의 다사다난했던 경진년 2000년을 뒤로 하고 21세기가 시작되는 2001년 신사년을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만 민족 최대의 고유 명절인 설날이 얼마 전에 지나 이제야 비로소 신사년 새해를 맞이한 듯합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금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충심(衷心)으로 기원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2월 2일 일본 동경도 미나토구 의회 의원 방문단 일행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상호 우호 친선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협정서가 우리 의회 의원동우회와 일·한친선 미나토구의원 연맹간에 체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방문단 일행과는 발전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교환과 금년 10월경에 방문초청이 있었고 양 도시간의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과 노력을 다할 것을 논의하였으며, 점차 국제화되어 가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 의회도 적극적인 의원외교를

통해 국위를 선양함은 물론 우리 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방문단 일행의 협정서 체결식과 환영행사 등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준 사무국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이 샘솟는 아름다운 종로건설」을 만들기 위하여 헌신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집행부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도 고마운 인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이번 폭설과 혹한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신 제설대책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과 설렘을 안고 출범한 새천년 첫해 2000년을 역사 속으로 보내고, 21세기가 시작되는 2001년 신사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작년 한해는 분단 반세기만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함께 그렇게 꿈에 그리던 이산가족의 만남,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잇는 경의선 복원공사 착공, 시드니올림픽에서의 남북한 선수들의 동시입장과 공동응원 등은 그동안 같은 민족 간의 반목과 갈등이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전환되었는가 하면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크게 드높였습니다. 반면에 의료계 파업과 같은 각종 사회이익집단들의 시위와 집단행동, 부실대기업 퇴출과 공기업, 금융기관 등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사태 발생에 따른 사회적 불안, 또다시 3년 전의 IMF와 같은 경제위기 재현 조짐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활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통스럽고 힘든 한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금년에도 경제전망은 매우 불투명하고, 그리 밝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기를 은근과 끈기로 극복해온 저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난관을 세계일류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로 삼아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금융, 기업, 공공, 노동부분에

대한 4대 개혁들이 공정하게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금년 2001년을 우리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중차대한 해로 규정하였듯이 경제적 도약의 기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선출된 당시의 야심차고 의욕적인 초심으로 돌아가 화합과 단결을 바탕으로 주민생활 향상에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와 관련,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는 등의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종로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오늘부터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정상 가동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와 성원 속에서 지방자치체가 부활하여 출범한 지도 이제 10년째 접어들었으며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체가 실시된 지는 5년밖에 안 되는 일천(日淺)한 역사와 미비한 관련법 제도 하에서도 우리 자치구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그 결과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자주의식을 더 한층 높임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에서는 현행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제도의 시행상 문제점 등을 빌미로 자치구청장 임명제, 자치구의회 폐지, 그리고 광역자치제만 있고 자치구제도를 폐지한다는 개정안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언론기관을 통하여 검토 중이라고 보도된 바 있고 또한 여야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초단체장의 임명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제출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편(안)은 한마디로 지방자치체의 가장 근본이 되는 자치구제의 틀을 분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체제를 역행하는 처사로 사료됩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염원하고 있는 우리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아니 할 수 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선진제국의 유구한 지방자치 역사에 비하면 아주 짧지만 그 동안에 이룩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문제점들만 내세워 자치구제도의 기본들을 흔들는 개정(안)들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 첫째 첫 번째로 개최되는 뜻깊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 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의원 발의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심사·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조례를 제정, 개·폐하고 예산안의 의결 등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음에 있어서도 지난해 12월 제2차 정례회시 예산승인과 관련하여 보고한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입안·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주시고 주민의 고귀한 세금으로 충당되는 각종 사업의 예산들이 투명하고 유효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그리고 주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냉철한 비판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느 지역의 대표가 아닌 우리 19만 종로구민의 전체의 대표자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전보다 더 열심히 진지하게 일하는 모습과 생산적인 의회상을 주민들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5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실시하게 되는 제108회 임시회에서도 소정의 성과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

사드리며,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상서(祥瑞)로운 기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이상으로 第108回 鐘路區議會 臨時會 開會式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時22分 閉式)

○ 出席議員數 19人

○ 出席關係公務員

- 副 區 廳 長 盧張鐸
-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 財 務 局 長 董連浩
-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 都市管理局長 河撤昇
-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 保 健 所 長 李星世

